



“주말 에코홈페어 관람 오세요” 강원에코홈페어 2019 건설·건축박람회가 15일 춘천시 봄내체육관에서 개막했다. 박진오 강원일보 대표이사, 정만호 경제부지사, 김진태 국회의원, 김수철 도의회 경제건설위원장, 이재수 춘천시장, 오인철 강원건설단체연합회장, 고기석 강원지방조달청장, 권중일 한국국토정보공사 강원지역본부장, 허인구 G1강원민방 사장 등 참석 내빈들이 박람회장을 둘러보고 있다. 강원일보사와 강원건설단체연합회가 주최하고 강원도와 춘천시 등 18개 시·군이 후원하는 이번 박람회는 17일까지 사흘 간 계속된다. 신세희기자

“친환경 건설 자재·신기술 주목” 첫날 5,000명 몰려

강원도 내에서 생산되는 우수 건설·건축자재 홍보 및 판로 확대의 장인 ‘강원에코홈페어 2019 건설·건축박람회’가 15일 춘천시 근화동 봄내체육관에서 막을 올렸다.

도내 유일의 건설·건축분야 전문 종합박람회인 강원에코홈페어 2019는 올해로 10주년을 맞았으며 강원일보사와 강원건설단체연합회가 공동 주최하고 강원도와 춘천시 등 18개 시·군이 후원한다. ▶관련기사6면
올해는 친환경 건설자재 및 신기술을 보유한 도내 우수 건설업체들과 지자체, 건설유관기관 등이 참여

강원에코홈페어 2019 건설·건축박람회 개막... 100여개 부스 북적

해 100여개의 부스를 가득 채웠다. 첫날부터 참가업체들의 자재·기술로 구성된 ‘비즈니스관’과 각 지자체 및 유관기관들의 건설시책·관광상품 등을 선보인 ‘공공분야관’을 둘러보기 위해 5,000여명의 관람객이 찾아 북새통을 이뤘다.

또 ‘나도 어린이 건축가레고 조립행사’ 등 체험 공간이 마련돼 자녀와 함께 박람회장을 찾은 가족 단위 관람객들에게 호응을 얻었다.

이날 개막식에는 박진오 강원일보

대표이사, 정만호 도 경제부지사, 오인철 강원건설단체연합회장, 김진태 국회의원, 이재수 춘천시장, 김수철 도의회 경제건설위원장, 허인구 G1 강원민방 사장, 고기석 강원지방조달청장, 서신구 한국은행강원본부장, 권중일 한국국토정보공사 강원지역본부장 등 기관·단체장이 대거 참석해 박람회장을 둘러봤다.

한편 올해는 개막 첫날 건설산업 활성화를 위한 발주처와 건설업체 간 교류의 장이 마련됐다. 박람회 참

가업체 대표 및 각 지자체 건설·건축 담당 공무원들은 춘천 스키컨벤션 웨딩홀에서 만찬 교류의 시간을 갖고 상호 간 계약·상담은 물론 산업 활성화 방안 도출을 위한 의견을 나눴다. 또 만찬 교류 자리에서는 2010년 첫 박람회 이후 높은 참여율을 보인 11개 참가우수 기업에 감사패가 전달됐다.

이번 박람회는 17일까지 열리며 행사 기간 하루 2회씩 ‘황금을 잡아라’ 추첨행사를 통해 관람객들에게 금 1돈 등 각종 경품을 증정한다.

윤종현기자 jjong@kwnews.co.kr

발주처-건설업계 허물 없는 소통의 장... 지역 발전 기원 한목소리



◇15일 춘천시 봄내체육관에서 열린 강원에코홈페어 2019 건설·건축박람회에서 안태경 도 건설교통국장을 비롯한 공무원들이 박람회장을 둘러보고 있다(왼쪽 사진). 이날 저녁 춘천 스키컨벤션웨딩홀에서 열린 10주년 기념만찬에서 내빈들과 참석자들이 건배하고 있다. 신세희기자

참가업체 대표 비롯 지자체 건설·건축 담당 공무원 대거 참석 10주년 기념 만찬 11개 참가 우수 기업에 감사패 전달하고 격려

강원도 친환경 건설산업을 견인하는 주역들이 한자리에 모여 상생과 새로운 도약을 위한 강한 의지를 다졌다.

강원에코홈페어 건설·건축박람회는 올해로 꼭 10년째를 맞았다. 이에 발맞춰 개막 첫날인 15일 춘천 스키컨벤션웨딩홀에서 기념 만찬이 열렸다. 이날 만찬에는 올해 박람회 참가업체 대표 및 각 지자체 건설·건축 담당 공무원들이 대거 참석해 교류의 시간을 갖고 상호 간 친목을 다졌다. 참가업체 대표들은 대표 생산품에 대한 홍보를 펼쳤고, 지자체 공무원들은 지역별 건설시책에 맞는 건설자재 및 신기술 등을 설명했다. 참석자들은 발주처와 건설업계 간 허물 없는 소통의 장이 마련됐으며 호평을 쏟아냈다. 친환경 강원도 건설산업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마련하기 위한 심도 깊은 논의도 이뤄졌다.

만찬장에서는 강원에코홈페어 10년의 역사 동안 높은 참여율로 박람회의 권위를 드높인 11개 참가 우수 기업에게 감사패를 전달했다. 특히 오인철 강원건설단체연합회장과 안태경 도 건설교통국장 등 강원 건설업계 수장들이 번갈아 수상자로 나서 화합의 의미를 더했다.

박진오 강원일보 대표이사는 인사말을 통해 “이번 박람회와 만찬자리가 단순한 일회성 행사에 그치지 않고 긴밀한 관계를 형성하는 계기로 발전해 서로가 상생하는 선순환 효과가 창출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오인철 강원건설단체연합회장은 건배사에서 “앞으로 강원도 건설투자 예산이 대폭 확대돼 보다 많은 일감과 일자리가 창출되길 바란다”며 “강원에코홈페어가 건설기업들의 판로를 확대하고 새로운 수요를 이끌어내는

개척의 장으로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안태경 도 건설교통국장도 김수철 도의회 경제건설위원장, 원태경 도의회 운영위원장도 건설산업 활성화를 통한 지역경제 발전을 기원하는 건배사를 해 박수갈채를 받았다.

강원에코홈페어 2019 건설·건축 박람회는 17일까지 춘천시 근화동 봄내체육관에서 계속된다. 관람료는 없어 매년 관련 업계 관계자들은 물론 가족단위 관람객들이 줄을 잇고 있다.

◇감사패 수상자 명단(무순)
 △김용곤 대상이앤씨(주) 대표 △남삼규(주)가나 대표 △정순국 강산기술단(주) 대표 △이금선 세월산업(주) 대표 △박석재·강창호 독일산업(주) 대표 △박승균(주)새힘공조 대표 △김전수(주)장성산업 대표 △박재희(주)월드케미칼 대표 △양치호(주)제이에이치 대표 △양홍춘(주)하성 대표 △한광용 한스개발(주) 대표
 윤중현기자 jjong@kwnews.co.kr

/ 이모저모 /

‘태극’ 오프닝 공연 박수갈채

◇강원도 대표 대북공연팀 ‘태극’이 강원에코홈페어 2019 건설·건축 박람회 개막식 오프닝 공연을 장식해 눈길. 특히 농악과 무용을 접목한 열정적인 태극 팀의 공연에 개막 첫날부터 박람회 분위기가 고조. 또 2012년 러시아 국제민속음악경연대회에서 그랑프리를 수상한 국악 아가펠라 전문공연팀 ‘토리스’가 개막을 자축하는 다과회에 앞서 축하공연을 선보여 박수갈채. 국내 최초 국악 아가펠라 그룹인 토리스가 이날 강원도의 정서를 가득 담은 아리랑 등을 아름다운 선율로 선보이자 내빈·업체대표들은 물론 관람객의 이목이 집중.

개막식 참석 내빈 전시장 투어

◇개막식에 참석한 내빈 모두가 참가기업 홍보부스를 일일이 둘러보는 전시장 투어에 모두 참여해 홍보·판매의 장을 실현. 참가기업 대표들은 건설유관기관장과 단체장 등이 내빈으로 대거 참석한 만큼 업체의 특화된 제품 특성을 적극적으로 알리기 위해 온 힘. 특히 안태경 도 건설교통국장, 김수철 도의회 경제건설위원장, 고기석 강원지방조달청장을 비롯한 강원도 주요 건설산업 발주기관장들은 전시장 투어가 끝난 뒤 일선 공무원들과 함께 또다시 업체 홍보부스를 찾아 강원도 친환경 건설자재 및 신기술을 파악하는 열정을 보여준 눈길.

주요 참석자 (무순)

△정만호 도 경제부지사 △김진태 국회의원 △이재수 춘천시장 △오인철 강원도건설단체연합회장 △김수철 강원도의회 경제건설위원장 △원태경 강원도의회 운영위원장 △김형원 강원도의회 경제건설부위원장 △조형연·나일주·조성호·박상수·이상호·박인균·신영재 강원도의원 △

허인구 G1강원민방 사장 △이정룡 한국광해관리공단 이사장 △유정배 대한석탄공사 사장 △서신구 한국은행 강원본부장 △고기석 강원지방조달청장 △정재경 강원중소벤처기업청장 △정영창 강원지방병무청장 △권중일 한국국토정보공사 강원지역본부장 △최경영 중소기업중앙회 강원지역본부장 △이금선 강원발전경제인협회장 △고광만 강원경제인국

제교류협회장 △김창기 강원도건축사회장 △박광표 대한시설물유지관리협회 회장 △이상권 한국폴리텍대학 춘천캠퍼스 학장 △경기정 강원신용보증재단 이사장 △이승섭 강원도경제진흥원장 △장흥균 한국엔지니어링협회 강원지회장 △박경식 강원도시가스 대표이사 △양민석 강원도체육회 사무처장 △오영섭 대한전문건설협회 강원도회 사무처장

“건설업체들 수주 기회 확보”

오인철 강원건설단체연합회장



강원건설단체연합회는 강원에코홈페어 건설·건축박람회의 10년 역사를 함께 달려 온 든든한 파트너이자 조력자다. 개최 10주년을 맞은 강원에코홈페어의 공동 주최를 맡으며 강원 건설산업 부흥에 기여하고 있다.

오인철 강원건설단체연합회장은 “강원에코홈페어 건설·건축박람회는 지역경제 활성화와 건설기업의 판로 확대를 궁극적인 목표로 10년째 이어져 왔다”며 “우수한 기술력과 경쟁력 있는 상품을 보유하고도 진출로를 확

보하지 못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에게 방향성을 제시하고 지역 자금의 선순환이 이뤄지도록 유도하는 기회의 장으로 자리매김했다”고 말했다. 그는 “최근 공공 SOC 예산 축소와 부동산 경기 침체로 건설투자가 꾸준히 감소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이번 박람회를 계기로 건설업체들은 수주 기회를 확보하고 수요자들에게는 보다 폭넓은 선택권을 제공해 상생 발전이 이뤄지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윤종현기자 jjong@**

“강원경제 성장의 사다리 역할”

안태경 도 건설교통국장



강원에코홈페어 2019 건설·건축 박람회의 성공 개최를 위해 전폭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은 안태경 도 건설교통국장은 “강원에코홈페어는 2010년 첫선을 보인 이래 강원도를 대표하는 건설 및 중소기업계 홍보의 장으로 우뚝 섰다”고 말했다. 안태경 국장은 이어 “강원도 건설산업은 평창동계올림픽 이후 큰 변환점을 맞고 있다”며 “강원에코홈페어가 지역 건설산업을 비롯해 강원 경제 성장의 사다리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만큼 건설업계를 비롯한 지자체

들은 남다른 기대감을 품고 있다”고 말했다.

안태경 국장은 건설산업 활성화를 통한 강원도의 평화와 번영을 기대했다. 그는 “건설산업을 기반으로 한 일자리 확대를 통해 평화와 번영의 강원 시대가 실현될 수 있도록 힘쓰겠다”며 “역점사업인 춘천~속초 동서고속화철도, 제2경춘국도, 제천~영월 고속도로, 강릉~제진 철도사업 등 건설계획이 가시화되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윤종현기자 jjong@kwnews.co.kr